

# 「‘농촌 유학 사업’ 추진 관련,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」에 대한

##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  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- 지금부터 『‘농촌 유학 사업’ 추진 관련,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먼저 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(기금포함)에 ‘농촌 유학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된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, 전액삭감으로 의결했습니다.
- 2022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도 동 사업 예산을 교육위와 같이 역시 전액 삭감하여 본 회의에 상정했습니다. 또한 12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15회 본회의에서도 ‘농촌 유학 사업’에 대한 지출항목을 삭감한 ‘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(기금 포함)’을 의결했습니다.

-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의회의 심의 결과를 비롯듯 동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다음 날인 12월 8일 교육청은 2023년도 농촌유학생 모집 공고를 게시했습니다.
- 본회의에서 예산이 최종 삭감된 2022년 12월 16일 전 후로도, 학부모설명회('22.12.13.), 신청서 제출('22.12.14.~12.20.), 사전방문('22.12.26.~ '23.1.4.), 최종 배정('23.1.11.)에 이어, 추가모집 절차를 진행했습니다.
-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이러한 업무집행은 의회의 예산 심의·의결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. 이를 방지할 경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균형과 견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.

-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기능의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!  
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자세입니다.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지출항목이라면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의회의 심의 완결과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.
  
- 심지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업추진이 무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적절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.
  
-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3년도 ‘농촌 유학 사업’의 무리한 추진으로 의회에게 예산심의·확정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지출 항목은 집행을 할 수 없게 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규명입니다.
  
- 본 의원은 사업을 추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들이

공무원에게 부여된 성실의무(법령준수)를 위반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.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!  
예산의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돼야 가능합니다.  
이것이 시민의 세금을 기초로 행하는 모든 행정에서,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나눠 가진 민주적 권한과 역할입니다.
- 서울특별시교육청의 ‘농촌유학 사업’은 업무처리 전반에 걸쳐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, 추진한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(법령준수)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- 본 의원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고유권한인 예산심의·의결 권한의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농촌 유학 추진 사업에서 보여준 이런 행태가 의회의 의결 권한을 훼손하고, 자칫 신청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, 감사원에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

게 됐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